

# 북미, 규산나트륨 시장 “생사기로”

## 2002년 수요 305만톤에 생산능력 350만톤 … M&A 추진 불가피

북미의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 수요가 2002년 소폭 증가했으나 출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규산나트륨 시장은 지역별로 다양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했으며,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단가 상승이 계속돼 2002년 말 몇몇이 가격을 인상했다.

2002년 미국의 규산나트륨 수요는 300만-310만톤으로 추정되는 반면, 생산능력은 350만톤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수요는 경기하향에 따라 약세를 보였으나, 3/4-4/4분기에는 소폭 신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규산나트륨 생산기업인 OxyChem(Occidental Chemical)에 따르면, 2002년 북미의 규산나트륨 수요는 전년대비 2-3% 늘어 액체 규산나트륨 기준 총 생산량이 305만톤으로 4만-6만톤 증가했다. 2002년 초에 예상했던 수요량보다 1-2%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 말에는 지속적인 생산단가 상승을 반영해 규산나트륨 가격도 상승했다.

OxyChem은 2002년 11월5일 전체 그레이드의 규산나트륨 가격을 cwt당 35센트(톤당 7달러) 인상했고, PQ 또한 2002년 12월1일자로 비슷하게 인상했다. PQ의 협력기업인 National Silicates는 2002년 11월1일부터 캐나다의 전 그레이드 표시 및 비표시가격을 4% 인상했다. PQ와 OxyChem은 2001년 11월에도 가격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가격인상은 발효일이 2002년 12월1일이지만, 몇몇 수요처는 계약가격 인상 발효일이 2003년 1월1일로 연장됐다.

PQ가 2002년 12월1일자로 가격을 인상한 것은 2003년 에너지, 운송, 주요 원자재 분야에서 흡수역량을 넘어선 코스트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PQ는 코스트 상승분 상쇄를 위해 소폭인상에 주력하고 있다.

가격인상 바람에도 불구하고 규산나트륨 생산기업들은 마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진확대가 아닌 유지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규산나트륨은 자본집약적 생산체제로 2003년에도 다른 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PQ는 용광로 설비의 개·보수 및 재설작업에 수백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원가상승분의 회복 및 상쇄액은 가동설비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PQ는 2002년 총수익이 2001년과 2000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는데, 2002년 평균 가스비용은 2001년과 2000년보다 낮았다. 그러나 2000-02년은 PQ가 규산나트륨을 생산한 82년 역사상 최악의 해였으며 앞으로 통합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2년에는 규산나트륨 가격이 상승해 Solid 및 Glass 그레이드 기준 List 가격이 cwt당 34-37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 다만, 장기계약의 대량구매 수요처들은 할인을 받아 전체적으로는 34-37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01년에는 cwt당 26.75-27.50달러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9/18>